

현대 상업공간 실내에 나타난 앗상블라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Installation Assemblage in Interior Of Contemporary Commercial Space

Author 최대기 Choi, Dae Ki / 정희원,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 석사과정
김문덕 Kim, Moon-Duck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 박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awareness that although interior spaces using the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s of assemblage are excellent means to reveal distinctiveness and identity with preeminent originality which are different from other spaces, there are few domestic studies and literatures on them. The results analyzed by preceding studies and ca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of assemblage which appear in the interior spaces of commercial area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semblage expresses identity of spaces with symbols capable of multiple interpretations through the method of integration and repetition of the materials used. Second, it strongly reminds visitors of memories on spaces by producing odd and unfamiliar scenes with such designs as installation art. Third, when it uses ordinary materials, it adds combination, integration, transformation or colors to the materials for extraordinary traits. Fourth, it pursues sustainability through recycling or upcycling by using wastes or natural materials. Fifth, in order to express materials to fit the purposes of spaces, it formulates outcomes with intentional plans. To sum up above analysis results, expressions of assemblage which appear in modern commercial spaces are characterized by expression of symbols with multiple meanings, pursue formativeness which fit the purposes and meanings of spaces, play the role of reminding memories on places by producing extraordinary spaces with strangeness and unfamiliarity such as installation art and sometimes show sustainability by using recyclable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reference materials which suggest directions of approach to interior spaces through assemblage techniques and materials which can be used in various design terms by domestic designers.

Keywords 앗상블라주, 실내디자인, 상업공간, 집적, 반복, Assemblage, Interior Design, Commercial Space, Agglomeration, Repeti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20세기 기계문명의 급진적 발달은 현대 미술과 디자인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상주의부터 시작된 전통 회화의 파괴는 야수파에서 팝아트에 이르기까지 당대에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실천한다고 자부했던 예술가들에게조차 스스로 보수파의 오명을 쓰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었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태동하였던 앗상블라주(assemblage)는 조형예술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작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물 또는 공업

제품들을 조합,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오늘날 미술은 물론 건축 및 실내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앗상블라주의 기법과 특성은 현대 실내디자인에서도 자주 차용되면서 실내공간을 위해 생산되는 일반적인 재료만을 사용하기보다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재료를 조합에 의한 연출로 비일상적인 느낌을 부여하는 심미적 자극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재료 선택과 조합을 통해 공간 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상업공간의 실내에서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이나 공간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표현기법이나 특성이 사용되었다. 특히 공간의 차별화를 통해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업공간 실내 디자인에서 앗상블라주의 표현기법과 특성의 활용은 독창성을 표현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상업공간 실내에 나타난 앗상블라주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moonduck.kim@kku.ac.kr

표현특성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실내공간에서 보다 창조적이면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앗상블라주의 표현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대 상업공간의 실내 중 2000년 이후의 해외 사례로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의 흐름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예술에서 앗상블라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앗상블라주의 개념을 살펴보고 예술에서 앗상블라주가 태동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그 전개과정을 조사, 선행 연구를 통해 앗상블라주의 표현특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실내공간에 나타난 앗상블라주의 표현특성을 추출하여 사례 분석틀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3장의 특성 분석틀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업공간 실내에 나타난 앗상블라주 표현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해외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5장에서는 분석을 정리하여 종합한다.

2. 앗상블라주와 실내공간

2.1. 앗상블라주의 정의

앗상블라주란 프랑스로 ‘모으기, 집합, 조립’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 평면적인 회화에 삼차원성을 부여하는 기법이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기성품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하며, 만들어진 형태나 구상이나 추상을 불문하고 모든 소재와 내용을 포괄하므로 양식에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 기법이나 방법론의 명칭이다.¹⁾ 앗상블라주란 용어는 프랑스의 화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가 피카소(Pablo Picasso)와 브라크(Georges Braque)의 콜라주(Collage) 기법과 자신의 작품을 구별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으나 1961년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열린 ‘앗상블라주 미술전’의 기획자인 윌리엄 사이츠(William G. Seitz)에 의해서 공식적인 미술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²⁾ 윌리엄 사이츠는 ‘앗상블라주는 예술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물이거나 공업제품의 집적이어야만 하며 그리거나 조각된 것이 아니라 접착제나 용접 등에 의해 묶여모아진 것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전혀 미술을 의도하지 않고 만들어진 소재로 쓰인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이 앗상블라주의 독특한 방식은 회화나 조각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현대 미술의 양식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전개해 나갔다.³⁾

2.2. 예술에서 앗상블라주의 전개

앗상블라주 작업의 기원은 큐비스트들의 작품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큐비즘의 대표 화가인 피카소는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에서 지나친 사물의 해체로 인한 현실성 결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의 1/3에 프린트된 유포조각을 사용하였으며 브라크는 ‘과일접시와 유리잔’에서 목탄을 이용하여 사람을 그리고 인쇄된 벽지를 사용하여 배경의 나무판자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파피에 콜레(Papier Colle)라는 기법을 탄생시켰다.



<그림 1> 피카소, 등나무가 있는 정물, 1912



<그림 2> 브라크, 과일접시와 유리잔, 1912

피카소와 브라크가 사용한 파피에 콜레의 콜라주 기법은 재료의 한계성을 극복한 2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후 다다의 레디메이드(Ready-Made) 작품에서는 비예술적 재료들과 발견된 오브제들을 조합하여 3차원의 예술적 시도가 본격화 되었다. 대표적인 작가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자전거 바퀴’나 ‘샘’과 같은 작품은 대량 생산된 공업제품을 물리적 변형없이 제목만 명기한 후 전시함으로써 기성품 조각으로 승화시켜 현대적 개념의 앗상블라주의 직접적인 효시가 되었다. 다다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동안 하노버에서 쿠르트 슈비터즈(Kurt Schwitters)는 길거리에서 모은 버려진 금속 부품이나 밧줄, 나무 같은 것들을 조합해 완성한 ‘성좌’에서 독자적인 ‘메르츠-콜라주’를 창안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집에 일상의 모든 소재를 끌어 모아 구축한 ‘메르츠 바우’의 앗상블라주 작업은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소멸시키고 과거 관습적 예술에 도전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다다 운동을 시작으로 앗상블라주 기법의 진정한 확산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의 네오 다다와 누보 레알리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⁴⁾ 네오 다다는 반예술 다다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상적인 오브제 도입으로 미술에 새로운 가치 체계를 세워놓았다. 기계 문명 속에서 생의 배제와 허무함, 다다의 정신을 환기시

1)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2016, p310

2) 안신정, 아쌍블라주 기법에 의한 도자조형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5, p.3

3) 조영진, 현대미술의 Assemblage양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2004, p.5

4) 황무현, Assemblage 기법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 석사논문, 2002, p.8



<그림 3> 마르셀 뒤샹, 자전거 바퀴, 1913
 <그림 4> 마르셀 뒤샹, 샘, 1914
 <그림 5> 쿠르트 슈비터스, 성좌, 1920

키고, 일상적인 생활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폐품을 이용하여 오브제를 사용하는 앗상블라주가 탄생하였다. 존 챔벌레인과 세자르는 파괴된 자동차의 부분들을 모아 용접과 압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림 6> 존 챔벌레인 'Fantail', 1961
 <그림 7> 세자르, '바스릴리프', 1962
 <그림 8> 루이스 네벨슨, '왕조의 황혼4', 1961

루이스 네벨슨은 잡동사니 목판의 오브제가 주는 역사적 시간과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조형화하여 환상적인 구조물로 표현하였다.⁵⁾ 누보레알리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60년 말에 파리에서의 제2회 전위 미술제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이듬해 '다다를 넘는 40도'란 전시회가



<그림 9> 다니엘 스페리 '그림들 덮' 1963
 <그림 10> 아르망, 장기주차 1982

계기가 되었다. 다니엘 스페리는 쟁반위에 음식이 남아 있는 그대로 식기류를 부착시켜 출품했다. 또 아르망은 산업폐기물을 집적한 작품을 출품함으로써 직접적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실 그대로를 드러낸 누보레알리즘의 의미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이처럼 네오 다다와 누보레알리즘의 작가들은 앗상블라주 기법을 더욱 더 발전시키게 되었다.⁶⁾

5) 조영진, 현대미술의 Assemblage양식에 관한 연구, 경향대 석사논문, 2004, p.30

2.3. 앗상블라주의 표현특성

앗상블라주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고찰, 나타난 앗상블라주의 표현특성으로 물질성 강조, 형상성 추구, 일상적 재료, 사회적 반영, 다의적 함축으로 도출하였다.

<표 1> 선행연구를 통해 본 앗상블라주 표현특성

연구자(년도)	내용	선행연구 특성	특성도출
한효림(2010)	집적과 반복을 이용한 오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성으로 강조한 물질성 • 다의적 형상, 함축 이미지 • 집적에 내포된 시간성 • 일상의 수용 	물질성 강조 형상성 추구 일상적 재료 사회적 반영 다의적 함축
최지은(2012)	앗상블라주의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브제의 집적 • 우연성 • 일상성 	
김근아(1989) 이정웅(1999) 조영진(2004) 박소라(2014)	앗상블라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성 • 일상성 • 사회적 • 우연성 	
황무현(2002)	앗상블라주 기법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성의 강조 • 형상성의 이용 • 현실성의 반영 	

(1) 물질성 강조

앗상블라주 기법은 사용되는 재료들의 물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체성의 상실이라는 방법을 취한다. 오브제를 조형적 표현에 이용함으로써 독립적인 존재감과 현실적 의미를 잃게 하였다. 어떤 재료로부터 그 물질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본질을 상실시키고 축적된 오브제의 색채와 형태는 물질성 강조로 추상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⁷⁾ 즉, 조형예술에서 사용되는 예술과 전혀 상관없던 일상적인 재료가 조형적 표현에 사용하여 관람자에게 잠재된 조형언어의 수단으로 작용, 오브제로 느껴지게 한다.

(2) 형상성 추구

집적과 축적의 방법이 사용되는 앗상블라주의 작품은 대부분 평범한 실용품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축적되었기 때문에 관람자는 우선 다량의 사물들의 집합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관람자는 각각의 사물들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형태를 인지, 동일한 사물들의 집합에서 오는 질서와 통일감 있는 조형효과를 느끼게 된다. 그렇게 하여 집적으로 제작된 작품들로부터 사회적인 의미와 순수한 조형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⁸⁾ 이처럼 앗상블라주 작품은 집적과 병

6) 양진숙, 이성이, 폐기물을 오브제로 재활용한 정크아트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p.264

7) 권순문, 목제의 앗상블라주 기법을 이용한 조형성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7, p.5

8) 한효림, 집적과 반복을 이용한 오브제 표현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 석사논문, 2010, p.24

치, 반복, 중첩, 분해, 해체, 재조립에서 얻어진 형상이 주는 연상의 이미지를 통해 본래의 재료에서 느낄 수 없는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새로운 오브제로 변모하는 형상성을 추구하였다.

(3) 일상적 재료

생활 주변의 일상적 재료를 주목하는 것에서 출발한 앗상블라주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 또는 공업제품인 비예술적 오브제들을 집적, 병치 등의 방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한다. 이렇듯 모든 일상의 환경이나 행위, 물체가 작품이 될 수 있으며 일상과 예술의 동일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예술적 가능성에 접근하였다.

(4) 사회성 반영

앗상블라주는 현대 도시의 급격한 공업화에 의해 대량생산과 소비의 문명의 결과로 발생한 예술 형태로서 그 소재를 일상에서 구하고 그것들을 다르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제시한다는 것이다.⁹⁾ 윌리엄 사이츠는 앗상블라주가 도시의 잠재적인 아름다움과 추함의 상징이며 영감의 근원으로 작가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쿠르트 슈비터스가 ‘폐품의 마술가’라 불리워 질 정도로 폐품을 이용, 재조립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대라는 사회성을 보여 주었다. 미술은 그 사회의 현상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해 주는 하나의 거울인 것이다.¹⁰⁾

(5) 다의적 함축

미술은 실재하는 계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세계를 작가의 눈을 통해 정신 안에서 구현, 이를 물질로 빚어 창출해낸 세계이다. 때문에 작가가 그리는 세계는 해석의 대상이 된다.¹¹⁾ 앗상블라주는 재료가 갖는 원형을 최소한의 물리적 변형을 통해 접합시키고 축적하는 반복 작업으로 다양한 형태와 그에 따른 내재된 의미나 해석을 만들어 다의적으로 함축된 형상을 만들어 낸다.

<표 2> 앗상블라주 표현 특성

특성	내용
물질성 강조	물질성의 강조로 추상적 이미지로 재구성
형상성 추구	재료의 집적을 통한 오브제 인식으로 형상성 추구
일상적 재료	일상적 재료를 사용한 예술성 부여
사회성 반영	대량 생산된 일상적 재료를 통한 사회성 반영
다의적 함축	재료가 갖는 원형의 최소한 변형을 통한 다의적 의미 부여

2.4. 앗상블라주와 공간

9) 황우현, *Assemblage 기법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 석사논문, 2002, p.4
 10) 나진숙, *Assemblage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5, p.45
 11) 김복영, ‘눈과 정신’, 경기, 한길아트, 2006, p.8

앗상블라주라는 용어는 20세기 미술사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나 그 본능적인 인류의 행위는 미술의 탄생부터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의장적 요소가 강조되었던 장식주의 시대 공간에서는 일반적인 장식이나 수집에 의한 단순한 치장에 의한 공예 중심의 예술로 표현되어 왔던 반면 모더니즘 시대의 실내공간은 전체성이 강조되는 디자인 특성으로 실내공간의 구성요소들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양식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극히 제한적으로 표현되었다.¹²⁾ 하지만 탈 모더니즘에 의한 개별성의 강조로 인해 오브제를 이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그 개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기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앗상블라주는 오늘날 까지 새로운 의식과 표현방법으로 재창조되어 조형예술의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현대미술에서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앗상블라주의 등장은 새로운 실험, 기술, 재료 등 다양한 각도로 제시되고 있으며 공간의 정체성을 표현함에 있어 보다 더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근대기 쿠르트 슈비터스의 메르츠 바우에 의해 공간적 가능성을 타진하던 앗상블라주는 현대 미술의 다원화 경향에 따른 파괴적 공간구성을 통해 그 특성을 강화하였다.¹³⁾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스키모토 타카시의 순간 프로젝트나 넨도의 작품 등으로 현대 실내공간에서도 앗상블라주 특성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3. 현대 실내공간의 앗상블라주 표현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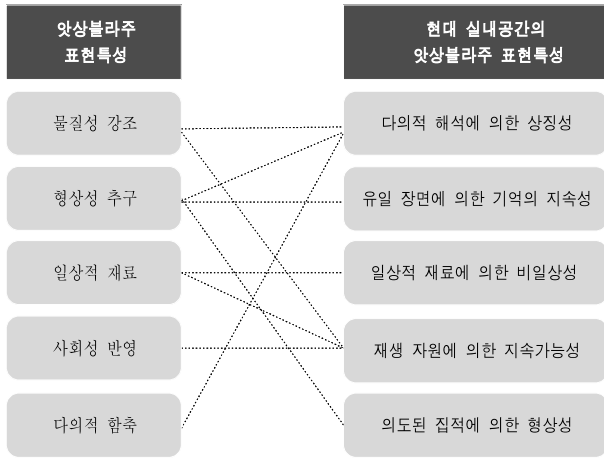
3.1. 현대 실내공간의 앗상블라주 표현특성 도출

본 연구는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앗상블라주 표현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나 앗상블라주 관점의 실내공간 분석한 자료가 미비하여 미술 관련 논문과 현대 실내공간 사례의 특성을 연구, 도출한 앗상블라주의 특성<표 2>을 재정리하여 <표 3>과 같이 도출하였다.

상기와 같이 도출한 키워드는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 유일한 장면에 의한 기억의 지속성, 일상적 재료에 의한 비밀상성, 재생 자원에 의한 지속가능성, 의도된 집적에 의한 형상성의 5가지 특성을 현대 실내공간의 앗상블라주 표현특성으로 도출하였다.

12) 심은주, 안트레 퍼트먼의 디자인에 나타난 실내공간 요소의 오브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1호, 통권54호, 2006.2, p.57
 13) 김수정,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오브제의 공간구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6호, 통권59, 2006.12, p.121

<표 3> 현대 실내공간의 앗상블라주 표현특성 도출



3.2. 현대 실내공간의 앗상블라주 표현특성

(1)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

상징이란 사람의 눈, 귀 등을 통해 직접 지각할 수 없는 무언가를 유사성에 의해서 구상화하는 것, 즉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형상을 가리키는 말로 미루어 짐작하는 유추의 수법을 사용한다. 실내공간에서 상징적 기법은 대상물에 정신적인 의미를 붙여넣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작가는 감정이입을 통해 단편적인 의미만 전달하는 직접적인 유추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간접적인 유추를 통해 표현된다. 프랑스 디자인회사인 카본데일(Carbondale)이 계획한 트레 비키에리(Tre Bicchieri)는 특수 제작된 와인잔을 집적하여 외벽에 장식하였다. 이것은 단순 기능의 와인잔이 주는 의미와 동시에 권위있는 이태리 식음 가이드인 ‘감베로 로소’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와인상인 트레 비키에리를 상징하는 등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와인잔을 통해 다각적으로 비춰지는 빛의 변화와 굴절된 외부와 내부의 형상들은 와인잔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장식 재료로 변모시켰다. 내부의 파티션에 사용된 형상은 와인잔에서 보여지는 단면의 모습을 사람의 옆모습에서 유추하여 또 다른 유희적 요소로 의미를 부여,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11> Tre Bicchieri, Carbondale, 2007, 상파울로

또한 와인잔을 통해 다각적으로 비춰지는 빛의 변화와 굴절된 외부와 내부의 형상들은 와인잔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장식 재료로 변모시켰다. 내부의 파티션에 사용된 형상은 와인잔에서 보여지는 단면의 모습을 사람의 옆모습에서 유추하여 또 다른 유희적 요소로 의미를 부여,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2) 유일한 장면에 의한 기억의 지속성

장소는 사건이나 기억을 통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도시 계획가 케빈 린치(Kevin Lynch)의 논문 ‘어린 시적의 어린 기억들’에서는 도시의 환경이 어린이들의 심상에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길, 흙담, 어느 특정 장소에서 있던 나무 같은 것들이 장소를 떠올리는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다.¹⁴⁾ 실내공간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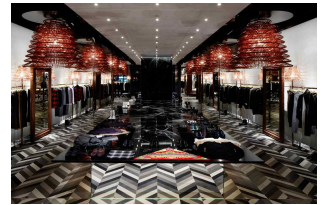
앗상블라주의 표현은 공간의 방문자에게 충격과 흥미를 제공함으로써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낸도(Nendo)의 사토 오오키가 설계한 뉴욕 캠퍼 매장은 수지로 복제, 제작한 신발모형을 벽면 가득 부착하여 공간과 브랜드에 대한 기억을 각인시켜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한다. 이처럼 공간에서 사용되는 앗상블라주의 기법은 다른 장소에서 볼 수 없는 생경하면서 유일한 장면의 제공에 의한 강한 인상을 부여하여 방문자에게 명확하게 기억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2> Camper, Nendo, 2013, 뉴욕

(3) 일상적 재료에 의한 비밀상성

비밀상이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이 아닌, 일탈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상상의 개념이 표현된 것으로 충격과 새로움을 유발하고, 흥미와 자극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⁵⁾ 실내공간에서 앗상블라주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비밀상성은 일상적 재료가 집적과 반복을 통해 공간 속에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표현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자극에 대한 것으로 일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 ‘환상적인’, ‘색다른’ 등의 감성어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외성의 효과에서 오는 공간에 대한 흥미유발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모리타 야스미치가 이끄는 글래머러스(Glamorous)에서 디자인한 신천지의 매장(Xintiandi Shop)은 수많은 옷걸이를 원형으로 연결하여 거대한 조명기구로 제작하였다. 옷걸이라는 일상적 재료를 사용한 작은 개체들의 군집으로 다른 느낌의 물체같은 비밀상성을 유발한다.



<그림 13> Xintiandi Shop, Glamorous, 2011, 상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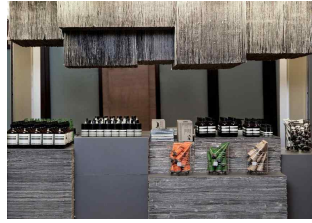
(4) 재생 자원에 의한 지속 가능성

앗상블라주의 표현 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실내공간을 위해 생산되는 재료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재료의 선택 범위가 매우 넓다. 본래의 사용이 아닌 장식의 목적으로 다시 재활용되기도 하고 재생 가능한 재료만을 사용되기도 한다.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제품들이 그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또 목적을 다해 버려져야 할 재료들을 재활용, 물질문명에 대한 메타포(Metaphor)¹⁶⁾와 비판을 담으면서

14) 김흥기, 건축조형디자인론, 기문당, 2008, p.270

15) 안주희, 류호창, 현대 식음공간에 나타난 오브제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0권, 1호, 통권, 16호, 2008, p.184

환경의 생태학적 가치관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에 있는 이속(Aesop)은 폐신문지를 집적하여 실용적 기능 집기로 재탄생시켰다. 호주의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하였다는 이속은 과도한 미디어 광고를 통해 브랜드를



<그림 14> Aesop, Tacklebox architecture, 2011, 뉴욕

홍보하는 것 대신 독특한 매장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철학을 전달하고 있다. 가장 몸에 좋은 원료만을 고집한다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매장에 사용되는 소재도 인류와 환경을 고려한 재생 가능한 소재를 선택하여 그들의 제품에 대한 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5) 의도된 집적에 의한 형상성

수집된 오브제를 집적함에 있어 어떠한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성을 띄고 제작되는 경우가 있다. 의도된 집적이란 물체의 크기, 형태, 질감, 색채 등을 고려하여 집적하는 것으로 최종 결과물이 작가의 의도에 의해 목표한 이미지로



<그림 15> Tide, LTL Architects, 2005, 뉴욕

형상화 하기 위한 작업이다. 엘티엘 아키텍츠(LTL Architects)가 계획한 타이즈 레스토랑(Tides Restaurant)은 해산물을 주재료로 한 씨푸드 레스토랑으로서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120,000개의 대나무 막대를 매장 전체의 천정에 촘촘히 부착하여 바다 밑의 해초를 표현, 씨푸드 레스토랑과 관련한 의도적인 집적을 통한 형상성을 통하여 매장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최종 결과물이 무의식적인 집적에 의해 우연히 완성된 것이 아닌 작가가 소재에 대한 사전 검토와 표현 방법, 형태의 조형미 등을 철저한 계획아래 완성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3.3. 소결

상기와 같이 도출한 현대 실내공간의 앳상블라주 표현 특성을 바탕으로 <표 4>로 재정리하였다. 재정리한 분류체계는 현대 상업공간 실내에 나타난 앳상블라주 표현 특성을 분석하는 기본 틀로 적용한다.

16) 어떤 말을 전화(轉化)된 의미로 사용하여 그것의 상징 의미나 특성과 매우 유사한 개념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용을 한다. 직유가 'A(원관념)는 B(보조관념)와 같다.'의 형식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분명한 데 비해, 메타포는 'A(원관념)는 B(보조관념)다.'의 형식으로 원관념은 숨기고 대상의 속성을 보조관념으로만 표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6014&cid=43667&categoryId=43667>

<표 4>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앳상블라주 표현특성 분석틀

표현 특성	표현 방법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	재료 자체의 직설적 의미가 아닌 다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 상징성
유일 장면에 의한 기억의 지속성	유일하면서 생경한 장면을 통한 기억의 지속성 유지
일상적 재료에 의한 비밀상성	일상적인 재료의 반복을 통한 비밀상적 표현
재생 자원에 의한 지속가능성	재생 가능 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지속가능성 표현
의도된 집적에 의한 형상성	의도된 재료의 집적, 반복을 통한 형상성 추구

4. 현대 상업공간 실내에 나타난 앳상블라주 표현 특성 사례분석

4.1. 사례분석의 대상과 범위

분석 대상의 범위는 2000년 이후 상업공간 실내에 앳상블라주 표현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해외작품 6곳을 선정하여 분석 하였다.

4.2. 사례분석

선정된 사례의 분석은 앞서 제시된 3.3.의 표현특성의 분석틀을 토대로 한다. 분석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인터뷰 기사, 잡지,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 종합 분석하여 표현 특성의 분석 정도에 따라 연관성이 명백하면 연관성 높음(●), 연관성이 부분적으로 해당되면 연관성 보통(○), 연관성이 보이지 않으면 연관성 낮음(○)으로 기준하여 분석하였다.


<표 5> 사례분석 1 / 출처 : <http://wonder-wall.com>

No. 1	Intersect (Lexus Flagship store)		
작가	Wonderwall	위치	일본, 동경
년도	2011년	용도	복합공간
개요	인터섹트(Intersect)는 도요타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의 플래그십 스토어로써 음료, 식사, 갤러리, 도서, 의류판매 등 다양한 기능의 목적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다. 건축물 외부 유리벽면 안에 설치된 대나무제질의 루버는 렉서스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모티브로 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내부계단 벽면에는 실제 자동차 부품들을 설치하거나 화장실 벽체는 장난감 자동차를 배열, 장식하여 공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¹⁷⁾		
이미지			
	표현특성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	계단실 벽면을 따라 설치한 자동차 부품들이나 화장실 벽면의 장난감 자동차의 장식은 이 공간이 실제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장소가 아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다기능 공간의 정체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 ¹⁸⁾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

17) <http://wonder-wall.com/project/292/>

유일 장면에 의한 기억의 지속성	비예술허적 재료인 자동차 부품들을 백색으로 도색한 후 장식적인 요소로 유리 벽면 안에 설치, 오브제 같은 느낌을 부여한 장면을 통한 시각적 충격으로 방문객들에게 장소에 대한 강한 기억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
일상적 재료에 의한 비밀상성	자동차 부품과 장난감 자동차라는 일상적 재료를 본래 목적을 탈피, 유리 벽 안에 조명과 함께 장식적 용도로 재생한 오브제로 표현, 비밀상성을 나타내고 있다.	●
재생 자원에 의한 지속가능성	자연에 얻어진 재료는 아니지만 이미 제작된 기성제품인 자동차 부품들을 사용, 재활용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일부분 표현하고 있다.	○
의도된 집적에 의한 형상성	백색으로 도색한 자동차 부품들을 계단 벽면에 설치미술처럼 장식한 것과 다양한 색채의 자동차 모형들을 의도적으로 집적한 디자인으로 형상성을 표현하고 있다.	●

<표 6> 사례분석 2 / 출처 : <http://www.superpotato.jp>


No. 2	Shunkan		
작가	Super Potato	위치	일본, 신주쿠
년도	2002년	용도	식음공간
개요	슌칸(Shunkan)은 슈퍼포테이토의 스키모토 타카시가 계획한 신주쿠역의 백화점 2개 층에 위치한 식음공간이다. 도시의 기억이라는 공간에 콘셉트에 맞게 공용공간의 부분부분의 벽에 설치한 재료들은 그 지역 도시인들이 사용했던 낡은 물건들을 수집, 부착 후 도색하였다. 빈병, 기계부품, 낡은 가전제품 등을 통해 시간의 변화, 도시인의 기억, 일상의 풍경들을 변형, 재현하여 도시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미지			

표현특성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	신주쿠 지역의 도시인들이 사용하던 낡은 생활용품인 빈병이나 가전제품 등을 수집, 설치감각으로 부착 후 도색하여 도시인이 갖는 기억과 향수의 감성을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상징성으로 표현하였다.	●
유일 장면에 의한 기억의 지속성	도시의 폐품들을 이용하여 설치감각으로 부착 후 도색한 벽면들은 생경한 느낌의 오브제로 변신한 장면을 연출, 슌칸이라는 공간을 방문객의 뇌리에 각인시켜 기억을 지속하게 한다. 동시에 신주쿠의 장소성을 반영, 장소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킨다.	●
일상적 재료에 의한 비밀상성	벽면을 장식한 것들은 실제 사용되었던 일상적인 재료들로서 설치감각으로 조합, 집적 후 채색하여 사용목적과 달리 의외의 비밀상성을 느끼게 공간에 표현하였다.	●
재생 자원에 의한 지속가능성	도시인들에 의해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여 최소한의 가공 과정을 거쳐 재사용, 재활용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의도된 집적에 의한 형상성	유사한 종류의 재료들을 의도적으로 조합, 집적한 후 채색하여 폐품의 용도에서 탈피한 설치미술과 같은 새로운 형상성을 보여주고 있다.	●

<표 7> 사례분석 3 / 출처 : <http://www.cbdarch.com>

No. 3	Tre Bicchieri		
작가	Carbondale	위치	브라질, 상파울로
년도	2007년	용도	식음공간
개요	트레 비키에리(Tre Bicchieri)는 상파울로에 위치한 와인잔 3개란 의미의 이름을 지닌 레스토랑으로 최고의 와인에 수여하는 상을 의미한다. 레스토랑은 이름에서 유추한 공간 콘셉트에 맞게 와인잔을 이용하거나 유추한 벽면의 장식이나 파티션 형태를 디자인, 공간을 차별화시켰다. 공간을 설계한 회사인 카본데일은 이태리장인에게 특별히 주문 제작한 900여개의 와인잔을 자외선 유리접착제를 사용, 층층이 쌓아 올린 디자인으로 레스토랑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²⁰⁾		

이미지			
표현특성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	외부 유리 벽면에 설치된 와인잔들로 만든 설치벽은 감베로 로소에서 최고 등급의 와인에 수여하는 트레 비키에리(3개의 와인잔)의 로고를 상징함과 동시에 소믈리에, 요리사, 지배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3명의 창업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²¹⁾ 와인잔 설치벽은 와인을 판매하는 공간이면서 최고의 와인을 맛볼 수 있다는 공간의 정체성에 대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	
유일 장면에 의한 기억의 지속성	구조적인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한 소재의 와인잔은 베네치아 유리 제조 장인에 의해 특별한 기술로 만들었으며 매장 외부 유리창에 면하여 설치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충격의 유일한 장면을 연출하여 방문자에게 장소에 대한 강한 기억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	
일상적 재료에 의한 비밀상성	와인잔이라는 일상적인 재료를 자외선 유리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시켜 본래의 용도를 상실하고 파티션의 용도로 재생성되었다. 또한 유리 파티션 겸 설치미술과 같은 장치는 빛과 유리를 통한 왜곡현상으로 내외부의 장면을 비밀상적인 이색적 풍경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	
재생 자원에 의한 지속가능성	장식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와인잔을 사용하여 재활용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	
의도된 집적에 의한 형상성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집적한 와인잔을 다시 서로 엮이게 배치, 모노그램화한 형상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금속 프레임과 기성재인 목재 루버를 이용, 의도적으로 와인잔의 형태에서 유추한 사람 옆모습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파티션으로 형상성을 표현하였다.	●	

<표 8> 사례분석 4 / 출처 : <http://www.sebastianmariscal.com>

No. 4	Plo Plo Restaurant		
작가	Sebastian Mariscal Studio	위치	미국, 뉴욕
년도	2009년	용도	식음공간
개요	피오피오(piopio)란 작은 새의 울음소리인 '삐약삐약'과 같은 의성어이며 라틴 아메리카의 페루음식을 주 메뉴로 판매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다. 공간을 계획한 세바스찬 마리스칼 스튜디오는 모험, 발견, 모순이란 공간 콘셉트로 초기 라틴아메리카의 오두막 형태의 건축을 연상시키는 천연 나뭇가지를 주재료로 하여 천정과 벽면의 대부분을 장식하였다. ²²⁾		
이미지			

18) <https://www.yatzer.com/intersect-lexus-tokyo>
 19) 전꽃별, 슈퍼포테이토의 식음공간에서 나타나는 물성 표현의 방법과 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4, p35
 20) <http://www.cbdarch.com/en/tre-bicchieri-restaurant/>
 21) <http://www.mgsarchitecture.in/projects/1399-hand-blown-glass-wall-tre-bicchieri-restaurant.html>

표현특성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나뭇가지는 도심속에서 자연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한 디자이너의 의도와 초기 라틴 아메리카의 오두막 건축을 연상시키게 ²³⁾ 하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유일 장면에 의한 기억의 지속성	뉴욕의 도심 속에서 나뭇가지를 설치미술처럼 벽과 천정에 배치하여 마치 외부의 자연 풍경이 보이는 것 같은 디자인에 의한 반전의 공간은 방문자에게 장소에 대한 강한 기억을 환기시킨다.
일상적 재료에 의한 비밀상성	천연 나뭇가지라는 일반적인 재료를 집적의 방법을 통해 거친 입자의 재료처럼 표현이 되고 설치미술과 같은 공간으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색적인 비밀상성을 표현하고 있다.
재생 자원에 의한 지속가능성	자연으로부터 얻어낸 재료를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 사용, 재생 가능한 재료로써 자연으로의 물질 순환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도된 집적에 의한 형상성	거칠고 불규칙한 자연 그대로의 나뭇가지를 단순한 공간 형태에 맞춰 균일하게 의도적으로 배치하면서 유리로 된 면에 멀리 자연 풍경이 보이는 것 같은 연출로 대비에 의한 형상성을 표현하였다.

<표 9> 사례분석 5 / 출처 : <http://tlarchitects.com>

No. 5 Tides Restaurant	
작가	LTL Architects
년도	2005년
위치	미국, 뉴욕
용도	식음공간
개요	39m ² 의 작은 공간인 타이즈 레스토랑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해산물 요리를 주 메뉴로 하고 있다. 공간을 계획한 엘티엘 아키텍츠는 작지만 특별한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바다를 연상시키는 해초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공간의 폭보다 높은 층고를 이용하여 천정에 120,000개의 아주 작은 대나무 막대를 촘촘히 박아 바다 밑의 자유로운 지형 위에서 물결에 의해 움직이는 듯한 해초를 형상화 했다. ²⁴⁾
이미지	
표현특성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	대나무 막대를 이용, 바다 물결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듯한 해초의 표현은 씨푸드 레스토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갈대숲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다의적 해석도 가능한 상징성이 나타나고 있다.
유일 장면에 의한 기억의 지속성	작은 규모의 공간적 한계성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수많은 대나무 막대를 이용, 표현한 해초의 표현은 방문객들에게 강한 장면의 연출에 의해 기억의 지속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일상적 재료에 의한 비밀상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더 이상 복제될 수 없는 유일한 조형물로 제작된 설치미술 같은 천정 구조물은 다른 공간에서 경험 할 수 없는 비밀상적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재생 자원에 의한 지속가능성	자연에서 얻어진 천연재료인 대나무 막대를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 본래의 용도보다 미적 창의성을 가미한 부가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전환시켰으며 재활용에 의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도된 집적에 의한 형상성	자연에서 얻어진 천연재료인 대나무 막대를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 본래의 용도보다 미적 창의성을 가미한 부가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전환시켰으며 재활용에 의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

<표 10> 사례분석 6 / 출처 : <http://www.nendo.jp>

No. 6 Camper Store in New York			
작가	NENDO	위치	미국, 뉴욕
년도	2013년	용도	판매공간
개요	스페인의 신발브랜드인 캠퍼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고 있다. 일본의 디자인그룹 낸도는 캠퍼의 가장 편안한 신발이라는 이미지를 시각화 하기 위해 수지로 제작한 백색의 신발 모형을 복제하여 매장 벽면 전체에 부착하여 '공중에서 자유롭게 걷는 듯한 신발'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²⁵⁾		
이미지			
표현특성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	수지로 복제한 신발 모형들을 벽면에 부착하였으며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신발들은 자유롭게 떠있는 신발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실제 상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유일 장면에 의한 기억의 지속성	복제한 신발 모형들 사이에 진열된 상품들은 더욱 시인성을 돋보이게 하며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설치미술같은 독특한 진열방식과 함께 조명에 의한 그림자 효과 등으로 방문자들의 뇌리에 공간에 대한 강한 기억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일상적 재료에 의한 비밀상성	일상적 재료를 모터프로 한 가공된 오브제를 사용한 설치미술작품 같은 연출로 방문객들은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비밀상적 경험을 하게 된다.		
재생 자원에 의한 지속가능성	재생 자원에 의한 지속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의도된 집적에 의한 형상성	초기 계획부터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감안하여 제작한 오브제를 사용하였으며 일정하고 정갈한 병치 기법으로 의도적인 형상성을 표현하였다.		

4.3. 소결

<표 11> 사례 종합 분석

표현특성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	①	●	●	●	●	●
유일한 장면에 의한 기억의 지속성	●	●	●	●	●	●
일상적 재료의 비밀상성	●	●	●	●	●	①
재생 자원에 의한 지속 가능성	①	●	○	●	●	○
의도된 집적에 의한 형상성	●	●	●	●	●	●

사례분석 결과 <표 11>과 같이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성, 유일한 장면에 의한 기억의 지속성, 일상적 재료의 비밀상성, 의도된 집적에 의한 형상성은 대부분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재생자원에 의한 지속 가능성은 일부 작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5. 결론

25) <http://www.nendo.jp/en/works/camper-store-2nd-concept-en>

22) <http://www.sebastianmariscal.com/pio-pio>
 23) <http://www.archdaily.com/52070/pio-pio-restaurant-sebastian-marsiscal-studio>
 24) <http://tlarchitects.com/tides-restaurant>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현대 상업공간 실내공간에 나타난 앗상블라주 표현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사용되는 재료의 본래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각각의 재료를 집적과 반복의 방법을 통해 다의적 해석에 의한 상징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대부분 설치미술과 같은 디자인으로 생경한 장면들을 연출, 방문자에게 공간에 대한 시각적 충격에 의한 장소에 대한 강한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으나 재료의 채색이나 복제 등에 의한 변형을 가미하는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부분 사례에서 주변의 일상적 재료인 자연물, 공업제품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상적 재료를 이용한 비일상성을 위해 재료의 조합이나 집적의 변형, 채색 등을 가미하고 있었다.

넷째, 재생자원에 의한 지속가능성은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기성재를 사용하기 보다 폐품이나 자연물을 사용,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에 의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적용이 안된 사례는 기성재의 복제 등의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대부분 사례에서 수집된 재료들을 공간의 목적과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의도적 계획에 의한 결과물을 형상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앗상블라주 특성을 이용한 해외 상업공간을 분석, 종합하였다.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앗상블라주의 기법은 일상 주변의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함으로써 독창적인 공간연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실내공간의 앗상블라주 특성에 의한 접근 방향을 제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것과 함께 국내 실내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디자인 어휘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주)월간미술, 2016
2. 김복영, '눈과 정신', 경기, 한길아트, 2006
3. 김흥기, 건축조형디자인론, 기문당, 2008
4. 안신정, 아상블라주 기법에 의한 도자조형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5
5. 조영진, 현대미술의 Assemblage양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2004
6. 황무현, Assemblage 기법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 석사논문, 2002
7. 권문순, 목재의 아상블라주 기법을 이용한 조형성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7
8. 한효림, 집적과 반복을 이용한 오브제 표현에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대 석사논문, 2010
9. 나진숙, Assemblage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5
10. 이송준, 누보레알리즘의 표현기법으로 아상블라주에 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0

11. 진꽃별, 슈퍼포테이토의 식음공간에서 나타나는 물성 표현의 방법과 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4
12. 양진숙, 이성이, 폐기물을 오브제로 재활용한 정크아트의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13. 심은주, 안트레 퍼트먼의 디자인에 나타난 실내공간 요소의 오브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6
14. 김수정,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오브제의 공간구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6
15. 안주희, 류호창, 현대 식음공간에 나타난 오브제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16.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지식엔진연구소
17. 원더월 홈페이지 <http://wonder-wall.com>
18. <https://www.yatzer.com>
19. 카본테일 홈페이지 <http://www.cbdarch.com>
20. <http://www.mgsarchitecture.in>
21. 세바스찬 마리스칼 홈페이지 <http://www.sebastianmariscal.com>
22. <http://www.archdaily.com>
23. 엘티엘 아키텍츠 홈페이지 <http://tlarchitects.com>
24. 낸도 홈페이지 <http://www.nendo.jp>

[논문접수 : 2017. 02. 28]

[1차 심사 : 2017. 03. 19]

[게재확정 : 2017. 04. 07]